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4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4. 1. 3.(수) 10:00 ~ 11:45
장소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1회의실/ERICA 본관 2층 화상회의실 (캠퍼스간 ZOOM회의로 진행)
참석현황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 참관위원 3명 참석, 간사 2명 참석
회의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금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소개</li> <li>2. 호선을 통해 위원장 선출</li> <li>3. 2024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심의 및 의결</li> <li>4. 2024 내국인 입학금 및 수업료 안 심의</li> </ol>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원보고(서울 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서울 예산팀장)</li> </ul> </li> <li>2. 등록금심의위원회 신규위원을 소개함(서울 예산팀장)</li> <li>3. 호선을 통해 위원장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학생인재개발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정(참석위원 전원 동의)</li> </ul> </li> <li>4.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서명을 요청하고 각 위원은 서약서에 서명함</li> <li>5.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운영수칙에 대해 안내함</li> <li>6. 2024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심의 및 의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서울캠퍼스 외국인전형 신입학 한국어기준 운영 보고(서울 예산팀장)</li> <li>나. ERICA 외국인 유학생 어학 및 학업능력 향상 노력 보고(ERICA 예산팀장)</li> <li>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는지 질의함(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캠퍼스 특정학과의 경우 5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정학과의 규모를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규모는 별도로 확인 후 전달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li> </ul> </li> <li>- ERICA는 학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기준이 토픽 3급인데, 서울캠퍼스 토픽 4급과 차이가 있는지 질문함(ERICA 총학생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차등 적용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 확인 후 전달토록 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li> <li>-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수업 신청시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업에 어려움이</li> </ul> </li> </ul> </li> </ol> </li> </ol>

있을 수 있으며, 입학 이후에도 한국어 어학 능력이 유지되는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정책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관련 내용은 국제처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함. 금일 제공한 자료 외에 재학 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달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이 토픽 3급 입학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치루는 학교 자체시험 난이도를 질문함(ERICA 총학생회장)

- 자체시험 난이도는 별도 확인 후 전달토록 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외국인 전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 캠퍼스 국제처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제안함(서울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 학우의 등록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입학기준과 어학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내국인 학생이 다소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에 논의하고자 했다고 설명함(ERICA 총학생회장)

- 이 회의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심의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학교의 예산이 들어가면 이는 결국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일부가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관련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함.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팀 프로젝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다양한 유학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함(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내용은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함.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수요자 중심에서 학교의 정책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학생대표와 국제처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위원장)

- 현재 ERICA 총 외국인 유학생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외국인 유학생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2년 연속 인상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려주기를 요청함. 인센티브 금액의 50%는 외국인 유학생 학우를 위해 사용하라는 가이드가 있음에도 외국인 유학생은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함. 따라서 50% 가이드보다 더 구체적인 예산집행 가이드를 제공하여 외국인 학우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현재 단과대학에 50% 이상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단과대학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다만, 단과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이번 회의와 관련한 결과를 안내하면서 다른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예시를 안내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규모가 작은 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산 배분이 작아서 다른 학과에 비해 혜택을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함.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인 격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본부의 보완이 필요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외국인 유학생 인센티브는 학부와 대학원 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서 배부하고 있으므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함. 인원이 적은 단과대학일수록 인센티브가 적게 배부되는 구조이며,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부분은 고려해 보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도 수업료에 일정 비율로 배부하며, 인센티브가 적게 배부되는 단과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함. 예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국제처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단과대학별로 배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유학생 입장에서 상대적인 격차를 많이 느끼지 않도록 본부에서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함.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국인 학생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화합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함. 추후 국제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내국인 학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본부 차원에서도 총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양대학교 전체 학생을 위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 심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 설명을 다시 요청함(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을 다시 설명함. 서울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 시 증가하는 금액과 현재 2024학년도 본예산 적자 규모를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ERICA의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 시 증가하는 금액과 2024학년도 본예산 적자 규모를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외국과 조약에 의해서 상호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적용하는 형태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타 대학교로 이동할 정도로 인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함(외부전문가 위원)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한 영향과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영향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어 어학 능력 향상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내국인 학생과 상호 융합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이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요청함(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은 동결,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포함) 5% 인상,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연구등록금 동결 안에 대해서 참석위원 11명 중 11명 찬성, 반대 0명으로 의결함

7. 2024 내국인 입학금 및 수업료 안 심의

가. 내국인 입학금 및 수업료 안 심의를 위해 학교측 제시를 요청함(위원장)

- 2024학년도 내국인에 대한 학교의 제시 안은 학부는 수업료 동결, 대학원은 입학금 동결, 수업료 2% 인상을 안으로 제시함(서울 예산팀장)
- 양 캠퍼스에 대학원 수업료를 2% 인상하는 경우 증가하는 예산 금액과 장학금 환원정도를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서울캠퍼스와 ERICA의 수업료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함. 아울러 등록금 인상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도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대학원은 지난 십 몇 년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원 수업료 인상이 학교 수지개선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함.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동안 대학원 등록금은 지속해서 인상되었으며, 누적적으로 보면 복리로 인상되면서 상승폭이 적지 않다고 함. 등록금 인상폭에 비하면 장학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함. 등록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 증액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ERICA의 경우 연구조교 장학금이 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장학금에 대해서도 인상계획이 있는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내국인 학부 등록금이 동결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함. 다만,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학교에서는 부득이하게 2% 인상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상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함. 장학금도 지속해서 증액하고 있으며 지급액이 매년 우상향하고 있다고 설명함(총무처장)
- ERICA의 경우 등록금의 약 50%가 교내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연구조교와 교육조교 장학금으로 연간 25억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함. 신입학 장학 등 대학원 장학금도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는 연구조교와 교육조교 장학금 조정계획은 없다고 설명함. 정보공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사립대학 규모 1천명 이상 되는 대학원의 평균 인당 장학금이 500만 원 수준인데 ERICA는 천만 원 수준으로 수도권 대학원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이 단순히 물가인상률만을 고려하는 접근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정 학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부족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함. 모든 계열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 시킨다는 시각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장학금 지급률은 장학금 종류가 상당히 많고 장학금 단가나 지급대상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액 총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라고 함. 다만, 이러한 부분을 각 계열, 각 학과마다 나눠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함. 또한, 등록금 수지를 계열별로 산정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총무처장)
-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은 대학원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임

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함.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 외에 다른 질문을 하겠다고 함. 작년 추경에 비해 본예산에 단기수강료가 다소 적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 설명을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수입을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과정별 작년 수입보다 크게 잡지는 않는 편이라고 함. 수입을 과도하게 잡으면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기관의 과정별 수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이라고 함. 실제 학기가 시작되면 지금 계상한 수입금액보다 일부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 실제로는 크지도 않거니와 수입이 들어온 만큼 강사료 등 지출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2023학년도 교비회계 수입을 보면 학교에서 본예산 수입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교비회계 수입이 항상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작년이 특히 차이가 컸다고 함. 국고에서 추가로 받을 인센티브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금액이 크다고 함. 그리고 작년의 경우 예상보다 복학생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설명함. 코로나시기에 휴학한 학생들이 대거 복학하면서 등록금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총장님께서 기부금 모금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기부금은 향후 1년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로 편성을 하고, 추후 모금 추이를 보면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국고보조금 규모 변동 사유와 법인전입금 규모 변동 사유, 병원전입금 규모 변동 사유를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국고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규모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법인전입금 일부 차이는 격년으로 진행되는 행사비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병원전입금은 현재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병원 공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심의는 다음 회의에 계속하기로 하며, 추가 질문이 없는 것을 확인함. 별도 요청자료가 있으면 예산팀으로 요청하기로 함(위원장)

8. 향후 일정 : 제4차회의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9. 폐회선언(위원장)

참석 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1명		위원장	위○찬		위원	안○익	
	불참자	0명		위원	이○석		위원	김○은	김도은
불참인원			위원	임○건		위원	문○원	문종원	
			위원	이○열		위원	이○빈		
			위원	김○산		위원	김○현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김○준				
간사	소속 : ERICA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서○민				
간사	소속 : 서울 총무처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대리		성명 : 유○규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b>회의명</b>	2024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b>일시</b>	2024. 1. 3.(수) 10:00 ~ 11:45
<b>장소</b>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1회의실/ERICA 본관 2층 화상회의실 (캠퍼스간 ZOOM회의로 진행)
<b>참석현황</b>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 참관위원 3명 참석, 간사 2명 참석
<b>회의안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금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소개</li> <li>2. 호선을 통해 위원장 선출</li> <li>3. 2024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심의 및 의결</li> <li>4. 2024 내국인 입학금 및 수업료 안 심의</li> </ol>
<b>회의내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원보고(서울 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서울 예산팀장)</li> </ul> </li> <li>2. 등록금심의위원회 신규위원을 소개함(서울 예산팀장)</li> <li>3. 호선을 통해 위원장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학생인재개발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정(참석위원 전원 동의)</li> </ul> </li> <li>4.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서약서 서명을 요청하고 각 위원은 서약서에 서명함</li> <li>5.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운영수칙에 대해 안내함</li> <li>6. 2024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심의 및 의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서울캠퍼스 외국인전형 신입학 한국어기준 운영 보고(서울 예산팀장)</li> <li>나. ERICA 외국인 유학생 어학 및 학업능력 향상 노력 보고(ERICA 예산팀장)</li> <li>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는지 질의함(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캠퍼스 특정학과의 경우 5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정학과의 규모를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규모는 별도로 확인 후 전달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li> <li>- ERICA는 학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기준이 토픽 3급인데, 서울캠퍼스 토픽 4급과 차이가 있는지 질문함(ERICA 총학생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차등 적용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 확인 후 전달토록 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li> <li>-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수업 신청시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업에 어려움이</li> </ul> </li> </ul> </li> </ul> </li> </ol> </li> </ol>

있을 수 있으며, 입학 이후에도 한국어 어학 능력이 유지되는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정책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관련 내용은 국제처 확인이 필요하며,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함. 금일 제공한 자료 외에 재학 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달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이 토픽 3급 입학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치루는 학교 자체시험 난이도를 질문함(ERICA 총학생회장)

- 자체시험 난이도는 별도 확인 후 전달토록 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외국인 전형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 캠퍼스 국제처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제안함(서울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 학우의 등록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입학기준과 어학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내국인 학생이 다소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에 논의하고자 했다고 설명함(ERICA 총학생회장)

- 이 회의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심의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학교의 예산이 들어가면 이는 결국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일부가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관련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함.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팀 프로젝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다양한 유학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함(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내용은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함. 이미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수요자 중심에서 학교의 정책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학생대표와 국제처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위원장)

- 현재 ERICA 총 외국인 유학생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외국인 유학생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2년 연속 인상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려주기를 요청함. 인센티브 금액의 50%는 외국인 유학생 학우를 위해 사용하라는 가이드가 있음에도 외국인 유학생은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함. 따라서 50% 가이드보다 더 구체적인 예산집행 가이드를 제공하여 외국인 학우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현재 단과대학에 50% 이상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단과대학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다만, 단과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이번 회의와 관련한 결과를 안내하면서 다른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예시를 안내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규모가 작은 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산 배분이 작아서 다른 학과에 비해 혜택을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함.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인 격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본부의 보완이 필요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외국인 유학생 인센티브는 학부와 대학원 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서 배부하고 있으므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함. 인원이 적은 단과대학일수록 인센티브가 적게 배부되는 구조이며,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부분은 고려해 보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도 수업료에 일정 비율로 배부하며, 인센티브가 적게 배부되는 단과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함. 예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국제처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단과대학별로 배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유학생 입장에서 상대적인 격차를 많이 느끼지 않도록 본부에서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함.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국인 학생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화합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함. 추후 국제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내국인 학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본부 차원에서도 총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양대학교 전체 학생을 위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 심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 설명을 다시 요청함(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을 다시 설명함. 서울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 시 증가하는 금액과 현재 2024학년도 본예산 적자 규모를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ERICA의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 시 증가하는 금액과 2024학년도 본예산 적자 규모를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외국과 조약에 의해서 상호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적용하는 형태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타 대학으로 이동할 정도로 인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함(외부전문가 위원)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한 영향과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영향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어 어학 능력 향상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내국인 학생과 상호 융합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이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요청함(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은 동결,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포함) 5% 인상,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연구등록금 동결 안에 대해서 참석위원 11명 중 11명 찬성, 반대 0명으로 의결함

7. 2024 내국인 입학금 및 수업료 안 심의

가. 내국인 입학금 및 수업료 안 심의를 위해 학교측 제시를 요청함(위원장)

- 2024학년도 내국인에 대한 학교의 제시 안은 학부는 수업료 동결, 대학원은 입학금 동결, 수업료 2% 인상을 안으로 제시함(서울 예산팀장)
- 양 캠퍼스에 대학원 수업료를 2% 인상하는 경우 증가하는 예산 금액과 장학금 환원정도를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서울캠퍼스와 ERICA의 수업료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함. 아울러 등록금 인상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도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대학원은 지난 십 몇 년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원 수업료 인상이 학교 수지개선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함.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동안 대학원 등록금은 지속해서 인상되었으며, 누적적으로 보면 복리로 인상되면서 상승폭이 적지 않다고 함. 등록금 인상폭에 비하면 장학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함. 등록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 증액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ERICA의 경우 연구조교 장학금이 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장학금에 대해서도 인상계획이 있는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내국인 학부 등록금이 동결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함. 다만,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학교에서는 부득이하게 2% 인상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상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함. 장학금도 지속해서 증액하고 있으며 지급액이 매년 우상향하고 있다고 설명함(총무처장)
- ERICA의 경우 등록금의 약 50%가 교내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연구조교와 교육조교 장학금으로 연간 25억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함. 신입학 장학 등 대학원 장학금도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는 연구조교와 교육조교 장학금 조정계획은 없다고 설명함. 정보공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사립대학 규모 1천명 이상 되는 대학원의 평균 인당 장학금이 500만 원 수준인데 ERICA는 천만 원 수준으로 수도권 대학원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이 단순히 물가인상률만을 고려하는 접근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특정 학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부족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함. 모든 계열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 시킨다는 시각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장학금 지급률은 장학금 종류가 상당히 많고 장학금 단가나 지급대상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액 총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라고 함. 다만, 이러한 부분을 각 계열, 각 학과마다 나눠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함. 또한, 등록금 수지를 계열별로 산정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총무처장)
-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은 대학원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임

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함.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 외에 다른 질문을 하겠다고 함. 작년 추경에 비해 본예산에 단기수강료가 다소 적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 설명을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수입을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과정별 작년 수입보다 크게 잡지는 않는 편이라고 함. 수입을 과도하게 잡으면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기관의 과정별 수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이라고 함. 실제 학기가 시작되면 지금 계상한 수입금액보다 일부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 실제로는 크지도 않거니와 수입이 들어온 만큼 강사료 등 지출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2023학년도 교비회계 수입을 보면 학교에서 본예산 수입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교비회계 수입이 항상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작년이 특히 차이가 컸다고 함. 국고에서 추가로 받을 인센티브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금액이 크다고 함. 그리고 작년의 경우 예상보다 복학생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설명함. 코로나시기에 휴학한 학생들이 대거 복학하면서 등록금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총장님께서 기부금 모금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기부금은 향후 1년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로 편성을 하고, 추후 모금 추이를 보면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국고보조금 규모 변동 사유와 법인전입금 규모 변동 사유, 병원전입금 규모 변동 사유를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국고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규모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법인전입금 일부 차이는 격년으로 진행되는 행사비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병원전입금은 현재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병원 공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심의는 다음 회의에 계속하기로 하며, 추가 질문이 없는 것을 확인함. 별도 요청자료가 있으면 예산팀으로 요청하기로 함(위원장)

8. 향후 일정 : 제4차회의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9. 폐회선언(위원장)

참석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1명		위원장	위○찬	[Handwritten Signature]	위원	안○익	[Handwritten Signatures: 이다빈, 김재준]
	불참자	0명		위원	이○석		위원	김○은	
불참인원			위원	임○건	위원	문○원			
			위원	이○열	위원	이○빈			
			위원	김○산	위원	김○현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김○준				
간사	소속 : ERICA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서○민				
간사	소속 : 서울 총무처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대리		성명 : 유○규				